

-(으)ㄹ 요량이다

~할 작정이다, ~할 셈이다

곰곰이 따져 본 의도를 나타냅니다. 요량은 ‘헤아림’이라는 뜻으로, 이것저것 따져 보고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받침 없음	-ㄹ 요량이다	그만두다 → 그만둘 요량이다
받침 있음	-을 요량이다	찾다 → 찾을 요량이다
ㄹ 받침	아무것도 붙이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 요량이다
목적으로	-(으)ㄹ 요량으로	של 요량으로 앉았다
띄어쓰기	요량은 명사	그만둘 요량이다
구어 표현	-(으)ㄹ 생각이다	그만둘 생각이에요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일반 규칙을 따르며 ㄹ 받침은 짧은 형태를 씁니다. 만들다는 만들 요량이다.가 됩니다. 요량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이 의도는 속으로 따져 본 것: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 요량이다.입니다. 스스로 계산해 두었지만 꼭 입 밖에 낸 것은 아닙니다.

-(으)ㄹ 요량으로 형태로 쓰면 어떤 행동의 목적이 되며, 다음과 똑같은 구조입니다: -(으)ㄹ 양으로. 그보다 더 흔하게 씁니다.

문어적인 표현입니다. 말로는 -(으)ㄹ 생각이나 -(으)려고 하다가 같은 뜻입니다.

■ 예문

- 1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 요량입니다.
- 2 조용한 곳을 찾을 요량으로 시골로 내려갔다.
- 3 그는 처음부터 발을 뺄 요량이었던 듯하다.
- 4 잠시 של 요량으로 앉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.
- 5 부품까지 직접 만들 요량이라면 시간이 넉넉해야 한다.
- 6 값을 올릴 요량으로 물량을 조절했다는 의혹이 있다.

■ 비교

-(으)ㄹ 양으로
매우 비슷하며, 둘 중 요량으로가 더 흔합니다. 요량에는 계산해 보았다는 느낌이 더해지고, 양은 단순히 의도를 나타냅니다.
של 양으로 앉았다. / של 요량으로 앉았다.

-(으)려고 하다
일상적인 표현입니다. -(으)려고 하다는 의도를 평이하게 말하고, 요량이라는 따져 본 의도이며 문장을 문어적으로 만듭니다.
그만두려고 해요. (구어) / 그만둘 요량이다. (문어)

-(으)려던 참이다
참이라는 의도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고정하고, 요량이라는 특정한 시점 없이 정해 둔 계획을 나타냅니다.
나가려던 참이었어요. (막 나가려던 참이었다) / 그만둘 요량이다. (그만둘 계획이다)

■ 주의

- ✗ 부품까지 직접 만들을 요량이라면 시간이 필요하다.
- 부품까지 직접 만들 요량이라면 시간이 필요하다.
ㄹ 받침 어간은 이미 ㄹ이 있으므로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처럼 씁니다.
- ✗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요량입니다.
-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 요량입니다.
요량은 명사이므로 관형형 뒤에 띄어 씁니다.
- ✗ 야, 나 그만둘 요량이야.
- 야, 나 그만둘 생각이야.
요량이라는 문어적입니다. 대화에서는 생각이다가 자연스럽습니다.